

사회봉사와 조직 정비에 앞장설터

제주 불다클럽, 5월 10일 창립20주년 기념법회

“스님님의 고정적인 관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사불자이며, 이것이 곧 불다클럽입니다.”

제주지역 재가불자모임인 불다클럽(총회장 송원식)이 지난 5월 10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창립20주년 기념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성호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 법담 스님(태고종 제주교구 총무원장), 해공 스님(성거사 주지), 우근민 제주지사, 오종진 의장(제주의회), 송원식 총회장과 역대 총회장을 비롯해 500여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울해의 불다대상, 신입회원패 전달식 등을 봉행했다.

불다클럽은 제주지역의 사회지도층 거사불자 108명을 시작으로 지난 1991년 창립해, 사찰지능별로 7개 자회(백록, 영주, 한라, 천지, 탐라, 반야, 정방)를 거느리고, 전체회원 700여 명(거사회원 350명, 부인회원 35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지역 최대의 신행조직이다.

성호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제주도

의 세계화로 모든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김없이 치유되고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하다”고 말했다.

법어에 앞서 송원식 총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나라와 도민의 안녕이 곧 자신의 행복이고 나를 존재하게 한다”며, 최근 인터넷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에 대

1991년 사회지도층 108명이 창립 7개 자회에 회원수 7백명 급 성장

해 “바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터넷 공간을 지혜로운 열린 소통 공간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0회 불다 대상 수상자는 >돌하르방 물허벌 여인상을 만드는 제주민예품명장 장공의 응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매노부모를 지극히 봉양한 안정례 불자 >자비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해륜사바라밀불사단에게 주어졌다. 이어 20여 명의 신일



불다클럽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5월 10일 제주그랜드호텔서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불다클럽 회원들이 불교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회원에게 배지와 신입회원패를 전달했다.

한편 불다클럽은 매년 불다 대상 수여 외에도 >자원봉사 센터 협약 봉사 >매월 아라복지회관 점심공양봉사 >군장병 위문행사 >자회교류법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 >불다동산 가꾸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7개 자회 또한 사회봉사활동과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다클럽 관계자는 “향후 노인불자들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단순히 요양원 수준이 아니라, 사후 장례와 49재, 묘지안장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팔작 전통지붕 대응전 건립

여수 향일암 낙성식 봉행

지난 2009년 화재로 소실된 전남 여수 향일암이 새롭게 복원됐다.

향일암(주지 원문)은 지난 5월 6일 대응전 낙성식을 갖고 화재로 소실되었던 대응전과 삼존불상, 종각 등 복원봉사를 완료했다. 이날 낙성식으로 2012여수엑스포에 맞춰 많은 관람객들이 향일암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된 대응전은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5포 내7포의 팔작지붕 전통양식으로 건립했다. 건물 외포에 십이지신과 거북이 모양 조각이 이채롭다.

한편 이날 대응전 외에도 종각과 여수



박람회 템플스테이로 활용할 96.12㎡ 규모의 수행관도 준공됐다.

원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향일암을 전국 제일기도량으로 만들어야겠다”며,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한국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소식

대구 대불청 찬불가 경연 대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제2회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가 5월 6일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2회째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지구장 권미아)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12개팀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대구경북전법단장

허주 스님, 한국불교대 대관음사 주지 밀허 스님, 범종회 대구교구 총무국장 임우 스님, 대구시의회 정순전 건설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대상은 보성선원(주지 한복스님) 어린이 범회팀이, 최우수상은 은석사 불미니유치원 팀이 각각 차지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점등식 봉행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5월 4일 교내 녹야원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생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종 동국대경주캠퍼스 총장은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안으로

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며 “어리석음과 고난을 타파해 행복한 부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라며 봉축사를 전했다. 한편, 경주 동국대는 5월 24일 ‘형산강 연등축제’ 5월 28일에는 정각원에서 봉축 범회를 봉행한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대불총, 봉축 탑 점등식 개최

대불교총연합회(회장 성문, 이하 대불총)는 5월 5일 중구 국제보상공원에서 달구벌 삼층 관동탑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 오신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봉축탑은 가로 세로 각각 6m와 높이 12m 크기로 전체가 한지로 제작됐다. 대불총 회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

은 “우리 모두가 개인의 욕망과 성취가 아닌 중생과 사회의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자비의 연등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대구총무원장 청운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해명정사, 대구시 단재장 등 사부대중 5백 여명이 참석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매주 두차례 무료급식 운영

대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가 5월 2일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을 개원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법혜스님과 이재근 선재마을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테이프커팅-현판식-후원

약정식 순으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5억 6천만원 규모로 조성된 자비의 집은 자원봉사자 11개 팀 150명이 참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국적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한마음

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노동자 어울림한마당 개최

전국 스리랑카 이주민 불자들이 광주에 모였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는 5월 6일 광주 광산구 평동공원에서 ‘전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스리랑카 이주민 노동자 100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각지에서 모인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이날 광주지역 불교계가 마련한 선물과 놀이한마당을 즐겼다. 행사는 오전 9시 스리랑카 전통의식에 이어 1부 어울림 경기(크리켓, 코끼리 게임 등), 2부 기념행사, 3부 어울림 경기(구기종목, 스리랑카 전래놀이), 4부 스리랑카 가수 초청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4월이면 스리랑카에서는 전통 설날인 ‘알랏아루르프’ 축제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의 설날을 맞아 고타부르(명절에 배개로 노는 전래놀이)를 비롯한 20여 가지의 스리랑카 전래놀이가 이어져, 고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이주성 대표는 “우리도 힘든 시기에 타국에 나가 돈을 벌어야하는 시기가 있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시



‘전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한 1000여 이주민 노동자들은 다채로운 경기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를 살아가는 형제들이며,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 것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자비의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 불교승보회, 광주광역시, 비전사, 광주전남 전법단의 후원과 광주불교NGO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힘을 보탰다.

스리랑카 출신 수파마 스님(광주 길상사)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스리랑카 식구들에게 큰 희망과 즐거움을 주어 감사하

다”며 서툰 한국어로 전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과 우송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가스렌지, 전자렌지, 밥솥, 믹서기 등 중요한 생활용품이 지급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출입국에 대한 상담과 한 마음선원 광주지원이 마련한 컵 연꽃등 만들기, 이·미용 봉사,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홍보,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부스에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중흥에 범어사가 앞장설 터

5월 7일 수불 스님 취임

범어사 주지 진산식(晉山式·취임법회)이 5월 7일 대응전 앞에서 봉행됐다. 지난달 신임 주지로 선출된 수불 스님의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관 스님, 명선 스님, 인환 스님, 지성 스님 등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범어사 전계대화상 효고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제중모 부산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와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및 신도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한 수불 스님이 범어사 주지로 취임하게 된 것은 경허 스님과 동산 스님의 수행을 가풍으로 삼아 모범을 세운 선찰대본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앞으로 범어사가 부산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취임사에서 “범어사는 근대 한국 불교의 부침의 분향이며, 한국 최대 불교도시의 중심부”라며 “범어사가 부산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으면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